

무관 또는 더블... 운명의 2연전 시작됐다

프로축구 현대 라이벌 울산-전북
오늘 FA컵 준결승서 1차 승부
8일엔 K리그 파이널A 1-2위 팀
우승 8부능선-막판 추격 '맞대결'

프로축구 K리그1(1부) 울산 현대와 전북 현대의 올 시즌 한 해 농사를 가늠할 2연전이 펼쳐졌다.

두 팀의 운명은 잔인하기만 하다. 우승이라는 목표를 두고 채찍질을 하고 또 쳤다. 지난달 28일 K리그 파이널 라운드 A 미디어데이 당시 홍명보(53) 울산 감독은 "벌써 시즌 막바지다. 이젠 결실을 맺어야 하는 시기다"라며 "자신감을 갖게 해 중요하다. 후회 없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행사에 참석한 울산 이철용(34)은 "모두 이거야 하지만 2위를 달리고 있는 전북을 꼭 이기고 싶다"며 "리그와 대한축구협회(FA)컵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리그 우승이 목표지만(FA컵)은 힘 빼고 준비한다는 생각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울산과 전북은 5일 오후 7시 울산수경기장에서 2022 하나원큐 FA컵 4강전을 치른다.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대구 FC-FC서울 대결의 승리 팀과 결승전에 만난다. 울산은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에, 전북은 2020년 우승 이후 2년 만에 정상을 노린다. 두 팀 모두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에서 탈락한 만큼 FA컵 결과에 따라 '더블(2개 대



K리그1 우승을 다투고 있는 울산 현대와 전북 현대가 5일 하나원큐 FA컵 4강전에서 만난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마포구 누리공소체육관에서 열린 K리그1 파이널 라운드 미디어데이에 울산 홍명보 감독(왼쪽부터), 이철용, 전북 김성식 감독, 송범근,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회 우승) 달성을 기대할 수도 있다. 양 팀의 대결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8일 오후 4시 30분 울산에서 K리그1 우승을 위한 중요한 승부를 벌인다. 파이널A 첫 경기를 치른 현재 울산이 20승 9무 5패(승점 69)로 2위 전북(18승 10무 6패·승점 64)에 승점 5 차이로 앞서 있다. 맞대결 결과에 따라 울산이 우승을 위한 8부 능선을 넘을 수도, 혹은 전북이 역전 우승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다. 울산은 최근 3년간 전북과 우승 경쟁

을 펼쳤지만, 시즌 막판 뒷심 부족으로 모두 우승을 내뱉었다. 홍명보 감독은 "울산 감독 부임 2년 차를 맞았다. (제가 감독으로 부임하기 전엔) 그런 일들이 없었다. 기술적인 면도 있지만 정신적인 면도 크다"며 "실력 문제라고 본다. 올해 아직 모르지만 시기 때문에 우승을 못한 거야. 실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은 K리그 사상 최초로 6년 연속 우승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다. 울산은 최근 3년간 전북과 우승 경쟁

을 펼쳤지만, 시즌 막판 뒷심 부족으로 모두 우승을 내뱉었다. 김성식(46) 전북 감독은 "제가 (선수 시절이던) 2009년 처음 전북에 와서 첫 우승을 했다. 최근에는 리그 5연패를 하고 있다. 한 해 한 해 우승할 때마다 노력은 필요했던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세월에 의해 연연한 건 없다. 그렇지만 우리 선수들 잘 지켜나 주고 있다. 남은 경기에서 좋은 승부를 펼치면 올해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성진 기자 hoo1006@sportbiz.co.kr

KLPGA 중계권 사업자 선정 논란 오늘 강춘자 대표 국감 출석 주목

법원이 최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중계권 계약 절차 중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강춘자(66)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KLPGA) 대표의 국정감사 출석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강춘자 KLPGA 대표를 5일 열릴 문체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감에선 투어 중계권 사업자 선정 과정의 의혹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표인 BMW 챔피언십에 KLPGA 소속 선수를 출전 금지한 문제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중계권 사업자 선정 과정의 의혹과 관련해 강춘자 대표가 어떠한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JTBC 디스커버리는 JTBC 골프를 통해 KLPGA 투어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JTBC 디스커버리는 KLPGA 투어 중계권 심사 때를 전후해 투어 비관 특집 방송을 5편이나 제작해 방영했다. 각종 가처분 신청 또한 3차례나 냈다.

특히 지난달 KLPGA 투어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중계권 사업자 선정 일할에서 SBS미디어넷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자 심사가 공정하지 않다고하며 가처분 신청을 낸 게 골프계 관심을 끌었다. JTBC 디스커버리가 KLPGA 투어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자와 중계권 계약 체결 절차 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일단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가 가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KLPGA 투어가 정한 입찰 자격과 심사 기준, 절차 등은 폭넓은 재량이 허용되는 회사법에 기반해 정당했다"며 미리 정해놓은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것이었다는 JTBC 디스커버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심사 기준 역시 세부적으로 설정해 심사가 공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종민 기자 min@sportbiz.co.kr

경주시업본부 과몰입치유 '힐링 캠프' 성료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시업본부 1월 서울올림픽파크에서 과몰입 중독재활치유 프로그램 '힐링 캠프' 행사를 개최했다. 힐링 캠프는 경륜과 경정을 이용하는 고객 중 과몰입 고해(CPGI) 진단점수 8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과몰입 진단 상담, 재정해결 방법 강좌, 자정 자라이딩, 미술관 전시 관람 등의 대안 프로그램을 활용해 과몰입에 대한 치유 의지를 높이고자 기획했다.

이날 행사에는 10명의 이용객이 참여했다. 특히 도박중독 치유 전문가인 한국도박문제관리위원회 위탁기관과 신용회복위원회 전문 강사가 참여해 도박중독 재활치유 프로그램과 채무조정, 개인회생, 신용교과 강좌 등 강의를 진행하며 실용성을 높였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을 완료하며 건전한 배팅 문화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결연경정 사업의 건전

화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희망길벗 관계자는 "도박중독은 개인의 의지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중독은 개인에서 가족 그리고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치유와 재발이 절실하다. 마음의 프리패스를 바꾸면 희망이 찾아오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상권 기자 ksh@sportbiz.co.kr

오늘의 날씨 WEATHER

서울 14/19, 수원 13/20, 춘천 11/18, 인천 13/19, 청주 13/21, 강릉 11/15, 대전 13/21, 대구 15/21, 전주 12/21, 광주 13/19, 제주 17/21

오늘의 날씨 WEATHER

서울 10/18, 수원 11/19, 춘천 10/19, 인천 11/17, 청주 12/19, 대전 12/19, 광주 13/19, 전주 13/19

푸홀스 통산 703번째 홈런포로 베이브 루스 넘어 통산 타점 2위

기록의 사나이 엘버트 푸홀스(4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통산 703호 홈런으로 역대 타점 단독 2위로 올라섰다.

푸홀스는 4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파크에서 열린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2022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방탄 경기에서 4번 지명 타자로 선발 출전해 0-0으로 맞선 6회초 선제 2점 홈런을 쳤다.

시즌 24호 홈런이 개인 통산 703호 홈런이다.

푸홀스는 볼 카운트 2볼 2스트라이크에서 피츠버그 선발 미치 켈러의 커브를 때려 왼쪽 담을 넘겼다.

이날 경기 전까지 야구 통계 웹사이트 베이스볼 레퍼런스 기준 통산 2천214타점으로 베이브 루스와 이 부문 역대 2위였던 푸홀스는 2타점을 보며 2천216타점으로 단독 2위가 됐다.

메이저리그 홈페이지 MLB닷컴은 루스의 통산 기록을 2천213타점으로 집계해 소개하지만, 푸홀스가 통산 타점 2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 부문 1위는 랭크 애런의 2천297타점이다. 연합뉴스

신호진, 전체 1순위로 OK금융 유니폼

남자배구 신인 드래프트

올 3관왕 인하대 원순 애스 활약

대한국체 최고 공격수 신호진(18·인하대)이 한국배구연맹(KOVO) 남자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의 영광을 안았다.

그는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2022-2023 KOVO 남자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OK금융그룹 유니폼을 입었다.

남자부 7개 구단은 2021-2022시즌 최종 순위의 역순으로 차등 확률을 부여해 지명 순서를 정했다. OK금융그룹이 불과 20%(20/100)의 확률로 1순위 지명권을 획득하는 행운을 누렸다. 추첨에서 OK금융그룹의 초록색 공이 가장 먼저 나오자 OK금융그룹 구단 관계자에선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가장 먼저 당상에 오른 석진욱(46) OK금융그룹 감독은 인하대 4학년 신호진을 호영했다. 신호진은 원순입시 공격수로 아웃사이드 히터 겸 아포짓 스파이커

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자질이다. 올해 대학배구 U리그에서 15경기에 출전해 84점(공격성공률 74%)을 올렸다. 인하대 OK금융그룹의 3관왕(대한항공배 전국대학배구 고성대 무안 대회, U리그)을 이끌었고, 대한항공배 고성대회와 U리그에서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현대캐피탈은 전체 2순위로 안양대 세터 이연승(21)을 뽑았다. 3순위 삼성화재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프로배구 남자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1순위로 OK금융그룹의 지명을 받은 인하대학교 신호진(가운데)이 석진욱(왼쪽) 감독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는 홍인대 미들블로커 김준우(22)를 선뎠다고, 4순위 우리카드는 수성고 세터 한태준을 지명했다. 이후 한국전력이 순천대학교 세터 김우영, KB손해보험이 성균관대 세터 박현민(18), 대한항공이 리베라 송민근(22)을 차례대로 호영했다. 이번 드래프트 취합률은 64%(22/34)로 지난해(61%)보다 약간 올랐다. 5팀=이정민 기자 j208@sportbiz.co.kr

오늘의 KBO 리그

원정	구장	홈	중계
SSG	원정	D	두산 SPOTV2
롯데	원정	NC	MBC SPORTS+
삼성	원정	KIA	KBSN SPORTS
LG	원정	KIA	SBS SPORTS

오늘의 경기

축구 대한축구협회 4강 울산-전북(울산 선수추천장) 대구-서울(DGB대구은행파크 3-이상 19시)

프로축구2부 대전-전남(19시·대전월드리플 경기장) 충남아산-서울 이랜드(19시30분·아산인산신항운동장)

프로농구 MG세아물곰과 KBL 컵대회 삼성-SK(14시) 상무-인삼공사(16시·이상 통일체육관)

테니스 광주오픈 국제배드민턴대회(광주전진올림픽체스콥스) AIF 안동국제주니어테니스(안동시민운동장)

스피드스케이팅 공인기록회(17시·태릉국제스케이팅장)

볼링 영일빙 프라데이(시30분·영일빙링크장)

내년 5월 한국서 세계체육기자연맹(AIPS) 총회

집행위 만장일치...역대 4번째 개최
한국 스포츠지도자 전력 증명할 기회

한국이 2023년(85차) 세계체육기자연맹(AIPS) 총회 개최지로 선정됐다. 한국은 3일(한국 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AIPS 집행위위원회에서 내년 총회 개최지를 결정했다. 집행위원들의 만장일치 지지를 얻었다. 이로써 1987년(50차·서울), 2011년(74차·서울), 2017년(80차·평창)에 이어 역대 4번째로 국내에서 내년 5월 AIPS 총회를 열게 됐다.

2023년 AIPS 총회는 그리스 그레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그스가 국가 사정으로 포기할 선언했고, 지난 8월 AIPS의 긴급 요청으로 한국이 총회 유치에 뛰어났다. 한국은 이전 3차례 AIPS 총회 경험과 더불어 훌륭한 스포츠 인프라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며 2023년 AIPS 총회지로 확정됐다.

AIPS 총회는 1924년 파리올림픽 기간에 국제스포츠기자들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만들어졌다. 스포츠기자들 간의 화합과 유대 강화, 취재 및 보도 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됐다. 내년 총회에는 130개국 스포츠 기자, 스포츠 단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그동안 중요한 국제 스포츠 행사를 앞두고 AIPS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해돋이를 끌었다. 1987년 총회에서 1988 서울올림픽을 준비하며 전 세계 스포츠미디어에 한국 스포츠를 널리 알렸고, 2011년 총회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권을 따내는 밑거름으로 삼았다. 2017년 총회에서는 평창올림픽 준비 상황을 전하며 스포츠 국제경쟁력을 입증했다.

2023년 총회도 한국 스포츠의 저력을 증명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2022년 국가개발위원회(ANOC) 서울 총회에 이어 국내에서 글로벌 스포츠 행사를 계속 진행하며 스포츠 외교 강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

된다. 아울러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2023 아시안컵 축구, 2027 충청권계유니버시아드 대회, 2036 서울하계올림픽 등 국내 개최 및 유치 예정 국제 스포츠이벤트에 대한 홍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인 AIPS 미디어 어워즈 시상식 라이브 방송 등에 K-팝, K-뷰티, K-푸드, K-관광 등 K-컬처 콘텐츠 홍보 및 체험에 대해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2 AIPS 총회에 참석한 한국체육기자연맹 양중우 회장은 "전 세계 스포츠 기자들이 한데 모여는 AIPS 총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이전 세 차례 국내 AIPS 총회처럼 2023년 AIPS 총회도 한국 스포츠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전 세계에 한국 스포츠의 저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역설했다. 로마(이탈리아)=신재희 기자 kkananom@sportbiz.co.kr

Smart Economy sportbiz.co.kr

대표번호 02)725-6007 이메일 sportbiz@sportbiz.co.kr

구독/광고 02)728-9007 기사제보 02)725-7563 FAX 02)725-3939

발행인 권민진 송진현 총괄편집 김창검

서울시 중구로 을지로 2길 7서씨베르텔스빌 4층, 구독료 1부 700원 한달 13,000원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서울 가 50072